

# 민주 전준위 구성 계파 살바싸움 치열

(전당대회준비위)

## 핵심 분과위에 丁·鄭 인사 포진, 孫 불리 쇄신연대 “사무총장 퇴진”에 이미경 일축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를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계파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선, 계인의 틀을 정하는 전대준비위(전준위)와 대의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 조직강화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 힘 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

정세균 전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를 관철시켰던 비주류 결사체인 ‘쇄신연대’는 4일 “총사퇴에는 임명직 당직자도 포함된다”며 이미경 사무총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쇄신연대의 공세는 이 사무총장이 전준위 총괄본부장이면서 조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 전 대표가 임명한 이 사무총장이 사퇴해야 조직력 면에서 우위에 있는 정세균계의 힘을 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전대를 안정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일축했고,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원내대표도 “누구든 과도한 요구를 해선 안 된다”며 이 총장의 편에 섰다.

지난 지도부 총사퇴 때는 비주류 측의 편에 섰던 박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주류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럼에도 비주류 측 박주선 전 최고위원은 5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이 총장에 대해 “사실 사무총장은 지도부 못지않은 지도부의 한 부분이다. 전 지도부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던 분이요, 또 이번에 선거에도 일진에는 선거 본부장으로 역할을 했다”면서 “굳이 그 자리에 남겠다고 집착하는 것도 모양새는 좋지 않지 않다”고 말했다.

전준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유력한 당권 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 측의 불만이 제기됐다. “전대 틀”을 정하는 당헌·당규분과위 등 핵심 요직에 정세균계와 정동영계 인사가 집중적으로 배치된 반면 손 전 대표계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분과위에는 정 전 대표의 최측근인 오영식, 정동영 상임고문의 MBC 후배인 노용래 전 의원이, 당헌·당규분과위에 두 계파의 브레인인 윤호중 전 의원과 최규식 의원이



“민주 전당대회 변화해야”  
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의원 등 3명의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민주당 전당대회와 아련통합 등의 이슈에 대해 의견을 밝히 /연합뉴스

참여했지만 손 전 대표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없었다.

때문에 이날 오준 손 전 대표와 가까운 오영식, 전혜숙 의원이 박 원내대표를 찾아가 “전준위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혜숙 의원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구성된 전준위는 정세균 전 대표체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정 전 대표를 재추대하기 위한 것이다. 목소리 큰 계파 간 지분 나누기 형식으로 비추어지면 민주당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전준위

위원 재구성 촉구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대 틀”과 관련, “전대 틀을 정하기 전에 당부위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당 인물·정체성 다 바꿔야”

### 전정배 의원 광주·전남 찾아 전대 ‘표심잡기’ 행보 본격화

다음달 18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호남 방문이 잇따르는 등 ‘표심잡기’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5일 전정배 의원이 광주와 전남을 2박3일 일정으로 찾은 데 이어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끝나는 내주부터 당권 주자들의 호남 방문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정배 의원은 이날 광주를 찾아 민주당 광산 갑, 을 지역위원회 당원 간담회를 하고 민주당의 쇄신과 정권교체를 위한 인물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 의원은 6일 민주당 목포 당원 간담회,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을 면담한 뒤 7일에는 광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조찬 간담회를 하고 순천지역 당원들과 간담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전 의원은 이날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201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길로 가느냐, 패배의 길로 가느냐를 선택하



는 장이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간판(인물)과 깃발(정체성)을 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을 ‘국민정당’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대표 국민정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새로운 인물이 간판이 되는 ‘스타 탄생’의 장이 마련되고 향후 야권 대통합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두 차례 대선 승리는 호남+개혁세력 결집이 원동력이었다”며 “민주당의 대표가 호남과 개혁세력을 묶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권 도전에 나선 김희석 전 원내대표도 6일 곡성과 장성을 방문해 당원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며, 8일에는 당 대표 출마 공식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영산강 살리기’ 등 호남 민심 청취

### 한나라 원희룡 사무총장 9~11일 광주·전남방문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전남을 찾아 사흘간 영산강 살리기 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도는 강행군을 펼칠지 호남 민심을 폭넓게 정취할 예정이다.

5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원 총장은 호남지역 당부점검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만난다.

원 총장은 이 기간 동안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F1 코리아 그랑프리, 여수 세계박람회 현장 등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장을 모두 둘러보고 농민·대학생 등을 잇따라 만나 한나라당과 현 정권에 대한 지역민심을 광범위하게 들을 계획이다.

또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나누와를 받게 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비대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총장은 특히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4대 강 사업을 강력히 반대

하는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영산강 유역 농민들도 직접 만나 이들의 반대 의견을 폭넓게 들을 예정이다.

순천 경실련 등 전남 지역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도 갖고, 대학생들과 함께 피자집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원 총장의 이 같은 행보는 자신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던 ‘친서민·소통·젊음’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원 총장이 4대 강 사업 등 주요 현안들의 추진과정에서 일방통행식 운영으로 국정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인정부분 여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찬반양론이 팽팽한 4대 강 사업 등에 대한 반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보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민주 ‘단일’이나 ‘집단’이나... 세대간 충돌

지도부 체제를 놓고 민주당 내 80년대 운동권 출신인 ‘486(40대·80년대학번·60년대생)’과 유신시대를 거친 전문가 출신인 ‘575(50대·70년대학번·50년대생)’ 그룹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75 그룹이 현행 단일성 지도부 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자 지난 2년간 정세균 대표 체제에서 세대교체의 기반을 마련했던 486 그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집단체제는 지도부 경선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당대표를 하고 차점자들이 최고위원을 하는 통합선출 방식으로, 한나라당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현 단일

### 486 “집단체제 계파간 나눠먹기” 575 “특정 계파 독주 견제 가능”

체제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분리선출 방식으로, 대표는 당직 임명과 공천 과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486의 대표 주자 격으로 당 최고위원 도전에 나선 최재성 의원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체제 도입론에 대해 “계파끼리 공천과 당직을 놓고 나눠먹기를 하자는 것”이라며 “결국 자신들도 죽고 당도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입성을 노리는 486 주자

대다수가 최 의원과 같은 입장이다. 이들은 집단지도체제 하에서는 정세균·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박주선·전정배·김희석 의원 등 당권 주자에 밀려 지도부에 들어가기 힘들 것으로 보고 당권주자들이 빠진 최고위원 후보들끼리만 경쟁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진 의원 등 비주류 결사체인 쇄신연대 측은 “집단체제를 놓고 특정 계파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

다”고 일축했다.

575가 주축을 이룬 쇄신연대는 오는 11일 공개 토론회를 갖고 집단체제 도입론을 공식 천명할 계획이다. 집단체제에 대해서 유력 당권 주자인 박주선 의원이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전정배 의원도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주류 측이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1위를 하지 못하더라도 2~5위 안에 3명 정도는 포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표를 못 받더라도 당 지도부에 수적으로 많은 인사를 포함시켜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보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조영택 의원 당 대변인 겸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영택 의원(광주 서갑·사직)이 민주당 대변인을 겸임하게 됐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현재 원내대변인인 조영택·전현희 의원이 당 대변인을 겸임하게 될 것”이라며 “두 대변인은 전당대회가 끝난 뒤 다시 원내대변인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당규상 대표는 대변인을 임명한 뒤 지도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신임 지도부 대변인들은 오는 9일 당 지도부인 비대위를 통해 인준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비대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광주교육대학교(제2기)
개강일시	·토요일 오후반 2010. 9. 4(토) 14:10
모집기간	2010. 7. 23(금)~9. 4(토)
수업기간	2010. 9. 4(토)~2011. 2. 26(토) (6개월 24주)
모집인원	·기초반:30명
수업시간	·매주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 300,000 ·우체국:503557-01-005018(예금주:광주교대)
수료후 특전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한자교육진흥회 이사장 자격증 취득기회부여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의 : 062)520-4243 010-9886-8964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체제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 했다. 상대를 보지도 못하면 즉 “낮 놓고 그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억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란?** 우주의 천사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종이가 나무나도 잘 알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도 명했다 하여 부처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2010년 2학기 신입생 모집(15주간)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초급	9월3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2시	150,000원	230-7700-2
평생교육원	관상고급	8월8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2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사주명리학초급	9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	19-21시	100,000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고급	9월2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00,000원	520-2516

● 조선대 등록 - 8월2일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8월2일부터 - 전화등록 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65세 이상 30% 감면 등(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

**교육전담강사** 소속 동양철학연구원장김경준

문의: 각 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 국방부지정 장교격인보도교육기관/한국산업관리공단 직업교육기관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 연수목적: 한자·한문의 올바른 교육을 담당할 실력과 자격을 겸비한 유능한 교사 양성
- 연수대상: 남·녀·노·소(한자급수, 학력제한없음) 18세이상
- 모집기간: 2010년 7월 28일(수)~2010년 8월 31일
- 수강료: 300,000원 (농협 175375-56-065137 예금주: 이종순)
- 모집현황: 각 과정별 25명
- 접수처: 광주시 서구 농성동 633-28(간암리체육공원) (사)한자교육진흥회 광주·전남본부

과정명	교육과목	개강/연수기간
제 1기 한자지도사 (기초현문)	· 부수해설, 사자소학	토요일 9월 1일 14:00~18:00
	· 1,800자(상용한자)자음표이	화요일 9월 7일 14:00~18:00
	· 중학교현문교과서 단문/산문/한시 한문법 지도법	2010년 9월 24일~2011년 12월 24일(24주)
제 8기 한문지도사 2급 (기본과정)	· 추구법·명심보감	금요일 9월 3일 09:00~13:00
	· 중·고교 현문교과서 단문/산문/한시 한문법	2010년 9월 3일~2011년 2월 11일(24주)
한문지도사 1급 (심화과정)	· 소학·대학	금요일 9월 3일 14:00~18:00
	· 격몽요결·중용	2010년 9월 3일~2011년 2월 11일(24주)

한문지도사 특목과정(논어,맹자)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수료후 특전  
-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증 및 이수증 수여  
- 각급학교(방과후학교) 강사 및 한자급수 시험반 출강  
- 시·구청·문화·복지센터 한자지도반 강사  
- 한문학원 개설 및 한자·한문지도 강사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자격취득기회

국가공인자격관리 운영기관: 광주시교육청학습수업지원센터(한문)학문연구지원센터  
(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 한국한자·한문지도사연수원 시행

문의안내 ☎ 062)366-9666, 367-8666  
e-mail: hanja-exam@hanmail.net / FAX: 062)366-9779

###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전남대학교(5기)	광주여자대학교(11기)
개강일시	·월요일 주간반: 2010. 8. 30(월) 09:00 야간반: 2010. 8. 30(월) 18:00	·금요일 오전반: 2010. 9. 3(금) 09:10 ·토요일 오전반: 2010. 9. 4(토) 09:10
모집기간	2010. 7. 23(금)~8. 30(월)	2010. 7. 23(금)~9. 4(토)
수업기간	2010. 8. 30(월)~2011. 2. 21(월) (6개월 24주)	2010. 9. 3(금)~2011. 2. 26(토) (6개월 24주)
모집인원	·기초반: 주·야간반 각 30명 ·심화반: 주·야간반 기존진급생	·기초반: 금·토요일 각 30명 ·심화반: 금·토요일 기존진급생과 편입생
수업시간	·매주월요일 주간반 09:00-12:35 야간반 18:00-21:35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수강료	₩ 300,000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 300,000 ·광주은행: 148-107-307803 (예금주: 광주여대)
수료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A) 한국공공인재개발원 평생교육원(원)의 자격증 취득기회부여(2단계수료시) · 각 현문학회 및 학원개설 및 감사 추천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국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원)의 자격증 취득기회부여(2단계수료시) ·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의 : 062)530-3873-5 지도교수 : 010-2611-1171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ie.jnu.ac.kr	☎문의 : 062)950-3582-4 지도교수 : 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